



## 한두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취재\_김성환

# “회원병원 높은 관심, 적극 성원 뒷받침돼야” 정책단체 발돋움, 국제적 위상 제고도

### 26·27·28대 병원협회장

한두진 명예회장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26대, 27대, 28대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했다. 한마디로 1990년대의 병원계는 한두진 회장의 시대였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듯 싶다. 또한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오너회장의 역량이 한 회장의 시대에 들어와 활짝 꽃이 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병원협회가 이전 병원장들의 친목단체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책단체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해 수시로 회원병원들의 권익과 한국보건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건의를 냈고, 잘못된 정책엔 과감하게 맞서 이를 개선해 나가는, 다른 의료단체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정책단체로서의 뛰어난 기능과 역할을 했었지요.”

한 명예회장은 “물론 이런 일들은 당시 협회 집행진이었던 부회장님들과 이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

무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실제 당시 협회 사무국은 지금과 비교하면 인원이나 시스템 면에서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조직력이나 체계, 무엇보다도 업무에 대한 숙지도 및 열의에 있어선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간의 협조도 잘 이루어졌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노조와 사용자간의 관계도 대단히 원만했지요. 이런 분위기가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협회이사 특히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맡아 봉사해 준 병원장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이 3기에 걸쳐 협회장을 맡아 대과없이 중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들의 노고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협회집행부의 화합과 협조정신은 정부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그를 통한 기대 이상이 성과를 가능하게 했고, 이런 모습과 성과는 병원협회를 정책 단체로 이끌어 올리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몇가지 성과 중에 요즘도 병원노사에 적용되어 원내에서의 과격한 쟁의를 규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공익기관에 병원을 포함시키는 일을 성사시켰고,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를 사전에 막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협회 집행진과 사무국의 환상적인 협조체계가 이룬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한 명예회장은 “물론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제 임기 중 1년에 두 번에 걸쳐 의료수가를 인상할 수 있었던 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당시의 열기를 떠올리는 듯 했다.

“그 때는 김영삼 정부가 끝나 갈 때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A씨가 저희 병협 회장단을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병원계에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느냐’고 하기에 ‘의료수가를 5% 올려달라’고 제의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들의 요구가 실현된 거예요. 연초에 수가인상이 한번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참 좋은 시기에 협회장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은 대다수 회원병원들로 하여금 ‘병원협회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협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두진 회장 재임기간 동안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AHF·IHF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병원연맹(IHF)은 물론 아시아병원연맹(AHF) 활동에 있어서 이전까지만 해도 이사국으로 가입은 되어

있으나 끌려 다니듯 하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한두진 회장 시대에 들어와 AHF 회원국의 일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급기야 이 기구의 회장직을 맡아 6개국이었던 회원국을 12개국으로 늘리고, 간행물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이전엔 볼 수 없었던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로서 병원협회 내의 국제관련 문제들이 대부분 원만하게 해결되고, 무엇보다 한국 병원계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런가하면 한두진 명예회장은 당시 AHF 뿐만 아니라 IHF 5명의 집행위원 중 일원으로 참석, 한국 병원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나머지 4명의 집행위원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순히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참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IHF 회원국들에게 한국에 대해 깊은 인식을 심어 주었다.

“당시 IHF 집행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한 회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간 화상회의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대화를 통한 회의이긴 했지만 매우 진지한 의제들이 논의됐고, 논의된 의제들 가운데 실제 집행된 것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가하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NGO회의에 IHF대표로





참석해 국제적 병원문제를 제기해 논의하는 등 WHO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도 했지요”

한두진 명예회장의 이런 활발한 국제활동은 이미 수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초 ‘2007 IHF총회’의 한국유치가 결정된 것 역시, 2003년 ‘IHF 샌프란시스코 총회’에 다수의 대표단을 파견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총회유치 활동을 벌인 병원협회의 노력의 결과라고는 하지만 총회 유치를 위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 총회에 참석,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IHF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한두진 명예회장의 노고 또한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국제활동이 병원협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만 고립되어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병원협회는 앞으로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 명예회장은 “지난해부터 병원들을 대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는 반드시 병원협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가 병원협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이 의료기관평가가 처음 제기되어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란 명칭으로 제기되어 DRG와 함께 정부와 병원간에 매우 첨예한 쟁점이 됐었지요. 당시 우리 병원협회 집행부는 이들 제도가 결국 병원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것으로 판단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끝끝내 그 실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지금에 와선 거의 모두 현실화되었는데 우리 병원계가 마지막으로 지킬 것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협회 주도의 ‘의료기관평가’입니다. 이를 위해 전체 병원들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예회장은 “병원협회가 법정단체가 된 것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병원협회는 협회의 기본적인 기능이 병원들간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2년 정도 남은 국제행사(IHF 총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협회는 회원병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두진 명예회장은 그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한국병원의 문을 닫은 후 현재 개인 사무실(충로구 창성동 98-19 · 02-739-0730 · doojinhahn@hotmail.com)을 열어 여전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KHA**